

신국원

본회 연구위원, 목사, 총회신학대학 교수

성정치 이론의 한계와 기만

이 글은 서강대 기독교인 연합이 지난 10월1일 연 밝은 성 문
화제에서 발표한 것을 저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이 발제의 임무는 성정치학의 이론과 실재를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대화마
당을 여는 일입니다. 이 심포지움은 성정치학의 주장에 뒷북을 치며 비판
의 화살을 날리려고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금번 모임의 목적은 성정치학
이 제기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는 또 다른 담론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소 비판적인 제목이 붙은 이 발제
도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 분석적 비판을 토대로 대화를 위한 제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정치학의 걸모습

성정치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므로 먼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1970년대초 페미니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회문제를 남녀의 차이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이 말은 부각시킨 작년 10월 연세대의 성정치 문화제에서는 그것이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문화제의 대변인 격인 서동진씨는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라는 글에서 그 성정치학을 "이성애 중심, 성인 중심, 그리고 생식 중심의 성"을 정상이요 보편적인 것으로 그리고 다른 형태의 성을 변태요 퇴폐로 규정하는 신념을 분쇄하려는 투쟁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정의는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의 저자 제프리 워스가 성정치란 "성차와 성적 분화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투쟁"이란 주장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정치는 성해방을 외치는 성혁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종래의 성혁명은 공중 윤리나 법률이 성적 쾌락 추구에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성인들의 성애가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성정치는 성을 정치화하기 위해 그것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체계를 노동의 분화나 계급의 투쟁의 도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잘 알고있습니다. 성정치학은 이것을 성차 또는 성적인 성향의 차이에 입각한 지배와 통제라는 도식으로 바꾸어 놓으려 합니다. 즉 성정치학은 성을 열쇠로 사회구조를 설명합니다. 나아가 성정치 이론가는 그들의 이론을 청취하는 대중 앞에 서서 지적 변화만이 아닌 사회정책의 변화까지도 선도합니다. 결국 성정치학은 성해방 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성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정치학의 속사정

지난해 성정치 문화제는 강간퇴치를 표제로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성인의 성, 이성애적 성, 생식의 성을 정당화하고 그 외의 성을 비정상적으로 체제화한 권력을 비판하는 일에 주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보아 이러한 주제로 문화제를 열었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주최자들도 이것을 인식하고 충격을 완화해볼 목적으로 강간과 같은 문제를 앞세웠지 않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숨기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동성애 옹호와 같은 충격적인 주제들을 맴돌며 입지를 확보해온 것이 주목할 만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들은 충격적이라 발언하는 사람이 겪었던 냉대와 고민의 뼈저린 경험담이나 호소와 함께 제기될 경우 쉽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주장은 전략적 논제만이 아니라 실제였음이 곧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화제를 주도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동성애 그룹들이 속속 물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정치학은 이들의 컴잉아웃(comming out)을 위한 길 닦기 작업이요 이런 그룹의 공식적 존속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성정치학은 보편화된 성의 정상성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입지를 확보해줍니다. 정상적 성이란 단지 근대적 성과학에 기초한 사회적 담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자연적이거나 절대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에 종사하는 근대적 성과학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공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정치학은 보다 깊은 곳에 복합적인 철학적 세계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성이 인간의 본질이요 삶의 근본적 형성요인이라는 프로이드적 사고를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나 윤리는 모두가 권력에의 의지의 반영이라는 니체의 생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동물로 생각하게 한 다윈주의와 유물론적 시각에서 문화-사회를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빛을 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정치학은 현재 서구를 휩쓸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힘입은 바 큼니다. 대표적 포스트모던 사상이 미셸 푸코의 책들이 성정치학의 기초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절대적 체제와 규범을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해체와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성정치학은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편승하여 성적인 다원주의 주장의 근거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정치학의 비전

성정치학은 기존의 성담론의 해체를 통해 성에 대한 지식체계 전반과 성적 윤리와 규범을 혁명하겠다는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자면 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프리 워스가 성을 하나의 전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 사회를 향한 투쟁이 성이라는 지형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야흐로 성의 움직임대로 사회도 움직여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성은 문화전략의 요충으로 삼고 이것을 장악하며 주도하는 것에 따라 나머지 사회와 문화가 좌우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소 엉뚱한 것 같으나 이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와 문화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관념보다는 감성이 지배력을 더해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몸과 그 쾌락이 오늘날처럼 중시되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성은 쉽게 인간의 본질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본질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체 사회와 문화에 커다란 여파를 미칠 지진을 일으킬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억압된 성의 담론들, 동성애, 여성해방, 성폭력, 여성과 남성의 지위문제, 성차의 문제는 매우 큰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 혁명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정치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정치는 성을 통한 문화와 사회혁명의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정치는 성다원주의를 토대로 이제껏 정상성과 보편성의 이름으로 사회를 지배해온 결혼과 가족을 중심한 이성애적 성과 그것을 중심한 사회제도와 윤리를 해체하고 다원적 성을 동등차원에서 인정받도록 한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는 동성애가 특히 전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는 실상 아무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도 성과학에 의해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핍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정치학은 무엇을 표면적 주제로 내어 걸던 항상 그 중심주제는 다수의 조직화된 폭력에 의해 희생된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권리운동 차원의 도덕성을 그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정당성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성정치학의 한계

첫째로 성이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성정치학은 성의 본질이 정치 이전에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한계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회적 담론은 언제나 타고난 본질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담론도 타고나는 신체적 여건을 기초로 해서 그 역할규정 등과 같은 한정적인 부분을 결정할 뿐 남자와 여자의 성차 같은 본질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정치학의 구성주의는 사실 그것이 의도하는 성 다원주의나 특히 동성애 옹호론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자신을 구성할 수 있다면 아마도 동성애적 성향을 자취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성차가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동성애 내에도 의사적 남녀의 역할분담이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둘째로 성정치학은 성의 정치적인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주목하는 편협

한 이론입니다. 성은 과학이나 정치로 환원될 수 없고 인격성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식생활이 감정, 미학, 취향, 오락과 심지어는 종교적 국면까지 가지고 있듯이 성도 그렇습니다. 우선 성은 생식을 위한 생물적인 기능이고 이를 둘러싼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스적 성애를 배제하고 정치만 강조된 성은 거세된 성입니다.

또 성을 정치적 권력관계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성이 단지 투쟁의 원인이 아니라 친밀과 사랑, 화해와 행복의 원인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비판론입니다. 성은 인간관계중 가장 밀접한 친밀의 관계를 동기주고 매개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기능이요 통로입니다. 성은 그 친밀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과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성은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랑과 헌신 등의 가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이 성애와 쾌락으로 환원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권력 투쟁의 장으로만 부각시키는 것은 삶을 지극히 빈곤하게 합니다. 셋째로 성정치학은 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견해로 인해 한계에 봉착합니다. 성정치학은 성민주주의나 성다원주의와 아울러 결국은 성적 규범이 완전히 철폐된 일종의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을 세우기 앞서 왜 성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완전히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것으로 풀어놓은 적이 없었던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최소한 무절제한 성과 무규범한 성이 가져올 파괴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을 윤리와 규범으로 구속해왔던 것입니다.

성정치학의 이런 낙관적 자세는 쉽게 모든 규범을 배격하는 독단론으로 빠져듭니다. 사실 성정치학은 기존의 담론을 해체한다는 열정으로 모든 다른 입장을 무지나 억압의 폭력으로 몰아잡니다. 다원적이고 민주주의적 환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독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성정치학을 해방적이기보다 억압적인 것이 되게 합니다.

성정치학 이후

성정치학의 실천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목표의 실천을 위해 성정치는 필히 억압적으로 보이는 성의 규범들을 해체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성애적 성윤리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더우기 성정치학은 억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규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가능한" 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지난해 성정치 문화제가 강간 퇴치를 표제로 내걸었듯 범법적인 성까지 용인하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성이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성입니다.

문제는 이런 규범의 해체가 성의 자유화와 상업화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성정치 문화제를 보도한 대중매체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을 그 즈음 개장한 섹스숍들이나 음란물의 문제 그리고 기왕에 외설적 예술운동을 통해 성해방 주장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오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정치학의 메시지와 날로 퇴폐화하는 현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도적 감각으로 바로 포착한 결과입니다.

결국 성정치학이 과연 성애화된 성을 넘어서는 대신 기존의 성에 대한 규범을 해체하여 오히려 불건전한 성을 만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범은 대개가 삶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지혜의 집적입니다. 성에 대한 규범은 불과 같은 성을 안전한 화로 속으로 모으고 원활히 제 기능을 하도록 지키는 보호막인 것입니다. 불완전하나마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제도와 규범들을 해체되면 닥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우리들의 도덕적 혼란의 현실로 인해 더욱 절실합니다. 경제적 여유와 더불어 도래한 향락적 분위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전통적 규범에 의한 성윤리가 급격히 붕괴되고 너나없이 극도로 쾌락적 성에 빠져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는 모든 성을 용인하는 것이 보다 정의롭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밝은 성담론을 위한 제안

지난해 성정치 문화제는 이제껏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문제점들을 부각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우리의 성문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도 서구어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외면해왔던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기된 문제들은 결코 성정치학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른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을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담론은 언제나 주어진 것에 대한 논의로 출발하는 것이지 남과 여의 성차 같은 본질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에 대한 바른 담론은 주어진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른 성담론을 위해서는 성의 본질에는 이미 규범적 요소가 담겨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담론이 본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규범적 요소를 따라 성담론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의 본질에 비추어 어떤 종류의 성적 욕구와 행위는 자연적 규범과 질서를 거스르고 그 결과 그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성적 성향과 행위가 모두가 동등히 다원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이 야말로 갈등과 억압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니다. 흔히 성을 다원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범이 깨어지면 반드시 피해는 나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성적 행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가정의 파괴와 질병, 질투, 배신감, 부정, 신뢰의 파괴와 버림받음,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과 수치심, 죄의식으로 인격이 짓밟히고 심지어는 태어나지 보지도 못한 생명을 빼앗는 잔인한 일이 모두 잘못된 성적 행위에서 기인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는 직접적으로 자기 몸이 개입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의 최대의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셋째로 비규범적인 성적 성향과 행위로 인해 고통의 치유는 당사자가 책임을 인정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인간은 타고난 조건과 본능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닌 자유롭고 윤리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생득적인 성향이던지 아니면 성장과정상의 문제이던지 간에 궁극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타고났으니 그 대로 살아도 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다른 성욕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문란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넷째로 성정치의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의 문제를 모두 정치적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정신적인 도움, 의학적인 도움, 종교적인 도움을 모두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성정치학은 너무나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혀 주장하는 일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정치학이 동성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옳지 않습니다.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 이성애와 동등한 권리획득을 하는 일은 오히려 사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을 인정하기까지 무한한 갈등과 고민을 겪는 이들에게 잘못된 변명을 주어 치유의 가

능성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정치학은 지적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인 성향은 식성처럼 그리고 언어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합니다. 강한 동기의식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이들 가운데 30-60 퍼센트가 전환에 성공한다는 보고는 이점을 증거합니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문제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도움 받는 일을 꺼림은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입니다. 우리는 성적인 문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성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 고집하거나 그 비현실적인 입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 발제나 오늘 심포지움의 목적이 논쟁이 아닙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성정치학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을 얻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 발제는 오늘의 심포지움에서 뿐 아니라 앞으로 기독교 공동체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할 하나의 대화의 시작일 뿐을 밝힙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초안 잡기 정도의 제안으로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발제 말미의 제안을 통해서 그간 성정치학을 접하거나 실천함을 통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다른 부정적 결과에 부딪쳐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